

“이슈·변수 많아 분산투자자 위험관리를”

올 재테크 전략 어떻게

“새해에는 다양한 이슈와 변수들이 많다. 가계의 재산형성을 돕기 위해 도입한 정부정책을 잘 활용하면서 분산투자를 통해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산관리 전문가들이 새해 재테크 방향과 관련해 한 말들을 요약한 것이다. 변수가 많아진 경제 환경에서 ‘계란을 나눠 담는’ 자기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중은행 프라이빗뱅크(PB)들은 새해 재테크 전략에 영향을 미칠 중요 이슈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 비교세,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 등을 꼽았다.

정부 정책에 따른 비교세 금융상품을 활용하되 국제 경제의 변동성이 큰 만큼 조심스럽게 투자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PB들의 이구동성이다.

새해 재테크의 첫 번째 화두는 이르면 3월 시판될 예정인 ISA다.

‘만능계좌’로 비교세 활용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 주목

美 금리인상 눈여겨 봐야

빛내 집 살때 고정금리 유리

ISA는 한 계좌로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하면서 비교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설계돼 ‘만능계좌’로 불린다. 연봉 5000만원 이상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이상 사업자는 의무가입 기간인 5년 만기를 채울 경우 ISA 계좌에서 나온 전체 수익금의 200만원까지 비교세 혜택을 받는다.

연봉이 5000만원 이하(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라면 비교세 한도가 250만원으로 늘어나고 의무 가입기간은 3년으로 짧아진다.

정기예금 이자로 200만원을 받으려면 1

억3000만원~1억4000만원이 필요한데, 그만큼의 ‘비과세 바구니’가 생긴 셈이다.

다만 국내 주식형펀드 등 이미 비과세가 되는 상품은 통합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ISA와 별도로 새해부터 해외상장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투자하면 세제혜택을 주는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 비과세특례’도 주목할 만하다.

이 펀드는 해외 주식 매매·평가 차익과 이에 따른 환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상품이다.

그러나 미국 금리인상과 신흥국 불안 등 국제경제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상황을 지켜보면서 선진국 위주로 지역별 분산투자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PB들의 조언이다.

양적완화가 이어져 주가상승 여지가 있는 일본과 유럽 지역 전용 펀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분산투자하는 것이 권고되고 있다.

글로벌 경제적 관점에서 개개인의 재테크

크에 가장 큰 영향을 줄 변수로는 단연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꼽을 수 있다.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 속도가 느리게 진행되고 그 폭이 작으리라는 예상이 많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고 PB들은 지적했다.

적극적으로 투자에 뛰어드는 성향이 아니라면 단기적으로 자금을 운용하다가 하반기 정도에 금리 상황을 봐서 움직여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뱅크론 펀드는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은 회사의 채권에 투자하는 것으로, 금리가 오르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미국 기준금리 상승으로 값어치가 높아질 달러에 투자하는 방안도 아직은 이득을 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 부동산 시세는 크게 오르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우세한 편이다.

미국 금리인상 여파로 대출금리가 들쭉이 있고 있는 만큼 빛내집 집을 사고자 한다면 고정금리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연합뉴스

■ 주간 증시 포커스

美 금리인상·저유가 불확실성 여전

제약·헬스케어·전기차종 효과 기대

재주가 많고 꾀가 많은 원숭이의 해를 맞이했다. 올해를 붉은 원숭이해라고 하는데 증권시장에서 상승은 붉은색이고 하락은 파랑색으로 표현한다. 막연하지만 2016년은 붉은 원숭이의 기운을 받아 증권시장이 상승해 투자자들 모두 높은 수익을 기원하며 한 해를 시작하자.

국내 주요증권사의 2016년 증권시장 전망자료를 살펴보면 각자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코스피지수 기준 1850~2200선을 예측하고 있다. 2015년 코스피 마감지수가 1961포인트였으니 하락보다는 상승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다.

하지만 코스피지수 연간변동폭을 -5.6%에서 +12.1%로 예상하고 있어 2016년 증권시장도 2011년 이후 시작된 장기 박스권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증권사별로 상반기와 하반기에 대한 예측은 엇갈리고 있다. 상고하저를 예측하는 증권사는 미국금리인상 가속화와 미국대통령선거 등에 따른 정책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상저하고를 예측하는 증권사는 미국이 추가금리 인상 이후 불확실성이 완화되어 내년 1분기는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로 하락하겠지만 2분기 이후는 유가도 안정화되며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필자도 2분기 후반부터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이는 상저하고를 예상하고 있다.

2016년 증권시장에 영향을 줄 변수는 첫째 올해 내내 국내증시를 괴롭혔던 미국의 금리인상 불확실성은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리인상에 따른 신흥국의 자본

시장의 자금유출의 속도 및 규모가 국내 지수의 변동폭을 결정할 것이다. 둘째 지난해 지속되었던 저유가는 올해 우리 경제의 최대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비산유국으로 저유가의 수혜국일 수 있지만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아 산유국을 중심으로 수요가 감소되고 세계경기의 위축이 장기화된다면 우리경제에 큰 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투자자들은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2001년 이후 1월에만 코스피지수와 코스닥지수 모두 6번하락하고 9번상승해 1월 효과를 실감하게 한다.

또한 코스닥지수가 코스피지수 보다 9번 추가상승했고 2013년 이후에는 3년 연속 코스닥지수가 추가상승해 코스닥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특히 2016년부터 대주주과세기준 변경으로 대주주 양도소득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지난해에 매도했던 자금이 유입된다면 코스닥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적 불확실성은 코스닥종목의 상승폭을 제한할 것으로 보이며 주목종목이 더욱 중요한 시기이다. 1월 효과를 기대할 만한 업종으로 고령화에 따른 제약과 헬스케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어 전기차관련주가 좋아 보인다.



정 계 두

〈유진투자증권
광주북지점장〉

올부터 실소유주 밝혀야 은행계좌 만든다

법인·단체 주요 대상될 듯

올해부터 은행 계좌를 새로 만들 때 실명확인 외에 계좌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밝혀야 한다.

3일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금융기관에 신규 계좌 개설 시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는 제도가 새해부터 시행된다.

현재도 금융기관은 고객이 계좌를 새로 개설하거나 2천만원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를 할 때는 고객 신원을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하고 있다.

새 제도는 여기에 더해 계좌의 실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 금융회사가 실소유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정보를 추가로 요구하도록 했다.

주요 적용대상은 개인보다는 실소유자가 직접 드러나지 않는 법인이나 단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소유관계가 복잡해 실소유자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지분율이나 실질적 지배력 등 세부 기준에 따라 실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정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엘니뇨 해수온도 상승 햇김 가격 오른다

신안 물김 위판량 15% 줄어

슈퍼 엘니뇨에 따른 해수 온도 상승이 해조류 양식에 타격을 줘 ‘햇김’ 가격이 크게 오를 전망이다. 김 주산지인 신안의 물김 위판량도 줄어드는 등 엘니뇨 현상이 전남지역 수산물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3일 이마트에 따르면 통상 11월부터 물김 채취를 시작해 이듬해 3월까지 양식한 물김을 수확해 햇김은 1월 초부터 출시되지만, 올해는 엘니뇨 때문에 1월 중순이 돼야 선보일 전망이다. 생산량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작년 10월 기준으로 엘니뇨 감시구역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2.6℃ 상승했는데 이 때문에 김 양식에 차

질이 생겼다.

김의 최적 생육조건은 8~10℃ 수준이지만 지난해는 그보다 높았던 탓에 김 생육이 부진했을 뿐더러 우리나라 서해와 남해의 김 산지에 10~11월 잦은 안개로 햇빛 노출량이 부족해 김 생산량 감소와 품질 하락 현상이 나타난 것. 특히 일부 산지에서는 이른바 갯병이라고 불리는 무름병이 나타나 수확량을 떨어뜨렸다.

수산물 관측통계에 따르면 작년 11월 전국 물김 생산량은 371만 숙(束·건조김 100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59.7만 숙)보다 생산량이 무려 34% 줄었다.

이마트는 작년 12월 신안군 수협이 자료를 인용해 12월 기준으로 물김 위판 물량은 지난해보다 15% 감소한 1210t에 불과했다고 소개했다. /오광록기자 kroh·연합뉴스



슈퍼 엘니뇨에 따른 해수 온도 상승이 김 생산에 영향을 줘 신안 등지의 올 겨울 김 생산량이 크게 줄었다. 사진은 완도군 군외면 어민들이 물김을 생산하고 있는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유)수호부동산중개법인은 법원으로부터 인가등록 (등록번호 15-16-15) 된 업체로써 법원경매 낙찰대리업무,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경락잔금대출, 질권대출 & 부동산 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기업입니다.

NPL 질권대출, NPL매입,매각 전문

(은행채권중개 및 근저당권부 질권대출 전문)

전국 최저금리!! 전국 최고 한도!! NPL 잔금 5.2~5.9% 중도상환 無

(유)수호중개법인 물건 광고					
광주지원	2014타경 30504	주택	군산지원	2012타경 7036	근린시설
광주지원	2014타경 20736	상가	남원지원	2015타경 377	공장
순천지원	2014타경 7817	근린상가	광주지원	2013타경 10367	공장
전주지원	2015타경 8853	근린상가	광주지원	2015타경 1428	공장
목포지원	2014타경 16341	숙박시설	광주지원	2014타경 6914	임야
전주지원	2015타경 5779	숙박시설	광주지원	2014타경 29078	사무실
광주지원	2013타경 10367	공장	수원지원	2015타경 9386	근린시설
장흥지원	2015타경 605	공장	서울동부지원	2015타경 3901	근린시설
광주지원	2014타경 30627	공장	남원지원	2015타경 179	아파트
전주지원	2015타경 3629	공장	의정부지원	2013타경 16018	임야
순천지원	2015타경 2628	공장	광주지원	2015타경 375	의료시설
목포지원	2014타경 13618	아파트형공장	목포지원	2013타경 7272	근린시설
군산지원	2014타경 9739	공장			

광주지역 추천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가능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파트너스는 하나/기업/현대스위스/솔로몬 등 다수의 금융기관 담보부 NPL매입, MG질권대출협약,JB캐피탈 NPL사업협약,담보부 NPL 수익계약 매입/중개 4000억원 돌파, 수협중앙회 NPL 질권대출 수탁법인 승인된 NPL전문기업입니다.

경매 개시 이전, 이후 근저당권 채권, 가압류채권 후 순위 근저당권, 가압류 채권 매입합니다.

NPL매입,중개,질권대출 담당 본부장 010-4557-3034
경매경락잔금대출지원담당 이 사 010-2170-3034

유한회사 수호 중개법인 /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도시개발

등록번호 200114-0058676 / 200114-0062461